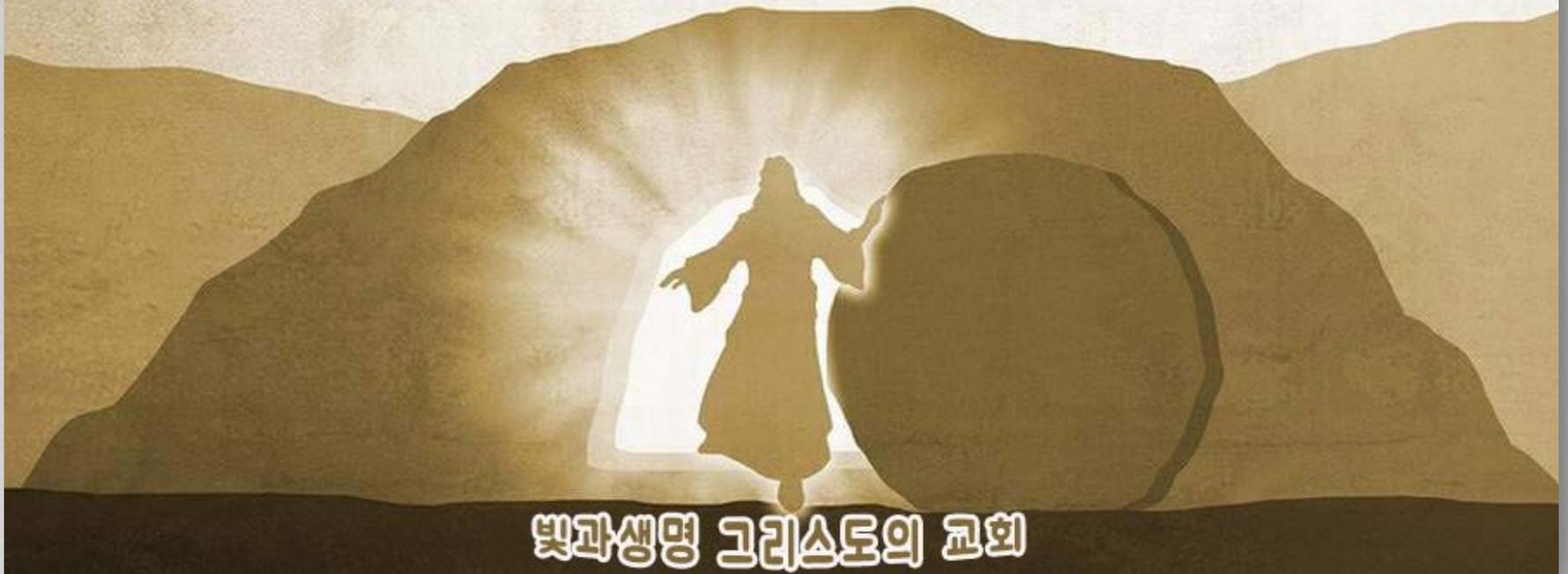


우리 주 예수 부활 하셨네!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네!



나를 가둔 무덤, 그곳에서 살아 나오는 것,  
(그리스도처럼, ~를 힘입어, ~로 말미암아)  
그것이 삶의 부활.

# 승리자 그리스도 = 승리자 그리스도인

## IS XS NIKA=Christians the Conquerors

[성구: 고전 15:55-58]

[55]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권면 또는 능력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이야기  
**승리자 그리스도**  
조동호 지음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 이 돈이 4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능력(삶의 에너지)이 무엇이였을까요?



콘스탄티누스 대제(AD 272-337)의 라바룸 주화(AD 337)  
전면에 월계관을 장식한 두상을 새겼고, 둘레에 '콘스탄티누스 대제'  
(CONSTANTINVS MAX AVG)라고 썼다. 뒷면에 뱀을 찍어 누른  
라바룸(LABARUM)을 새겼고, 좌우에 '대중의 희망 콘스탄티누스'  
(SPES PVBLICA CONS)라고 썼다. 라바룸 상단에 '그리스도'  
(XPISTOS)의 첫 두 글자 키(X)와 로(P)를 겹쳐서 장식하였다.  
콘스탄티누스는 꿈에서 IN HOC SIGNO VINCES(이 표식으로 너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는 음성을 듣고, 이 라바룸을 312년 10월 28일  
밀비우스 다리 전투 때 처음 사용하여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였다.



베트라니오 로마황제의 주화(AD 350)

전면에 월계관을 쓰고, 동체갑옷을 입은 베트라니오(Vespasian, AD 350)를 새겼고, 뒷면에 우리의 주 베트라니오 경건하고 다복한 아우구스투스(DN VETRANIO PF AVG)라고 썼으며, 뒷면에 손에 군기와 홀을 손에 쥐는 베트라니오에게 여신 승리(Nike)가 월계관을 씌우는 장면을 새겼고, 뒷면에 "이 표식(XP)으로 승리자가 될 것이다" (HOC SIGNO VICTOR ERIS, In this sign, conquer)라고 새겼다. 이 글귀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꿈에 하늘에서 들은 음성이다.



중앙에 복음서를 가슴에 품고 계신 예수님과 그 밑에 십자가는  
 11세기에 비잔틴제국에서 사용된 주화들이다. 그리고 밑에서 시계  
 방향으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하나님을 향한 눈' 주화(AD 328-9),  
 '십자가' 주화(AD 320), '하나님의 손' 주화(AD 337-340), '십자가'  
 주화(AD 320)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헬라어 첫 두 글자 '키-로' 와  
 그 사이에 알파(A)와 오메가(W)를 새긴 주화는 마그네티우스의 주화  
 (AD 350-353)이다. 콘스탄티누스는 꿈에서 'IN HOC SIGNO VINCES'  
 곧 '이 표식으로 너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는 음성을 듣고, 이 크리스트그림을  
 312년 10월 28일 밀비우스 다리 전투 때 처음 사용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마그네티우스 로마황제의 주화(MAGNENTIUS, AD 350-353)  
전면에 동체갑옷을 입은 마그네티우스를 새겼고, 우리 주 마그네티우스  
경건하고 대복한 아우구스투스(DN MAGNENTIVS PF AVG)라고  
썼으며, 뒷면에 키로(chi-rho)를 새겼고, 그 사이에 알파(A)와  
오메가(W)를, 둘레에 우리의 고귀하신 아우구스투스와 카이사르의 강건  
(SALVS DD NN AVG ET CAES)이라고 썼다.

이 돈이 5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능력(삶의 에너지)이 무엇이였을까요?



테오도시우스 2세의 주화(408-450년 재위)  
전면에 AEL EVDOCIA AVG(아일리아 에우도키아 아우구스타)라  
새겼고, 뒷면에 화관, 십자가, CONS\*(콘스탄티노폴리스)를 새겼다.



이 돈이 비잔틴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능력(삶의 에너지)이 무엇이였을까요?





이 돈이 10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능력(삶의 에너지)이 무엇이였을까요?



비잔틴시대의 주화(요한 1세, AD 969-976)  
전면에 복음서를 품고 계시는 예수님을 새겼고, 좌측에 예수(IC)를,  
오른쪽에 그리스도(XC)를 새겼으며, 뒷면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IHVSXPISTVS BASILEV BASILE)이라고 새겼다.

이 돈이 1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능력(삶의 에너지)이 무엇이였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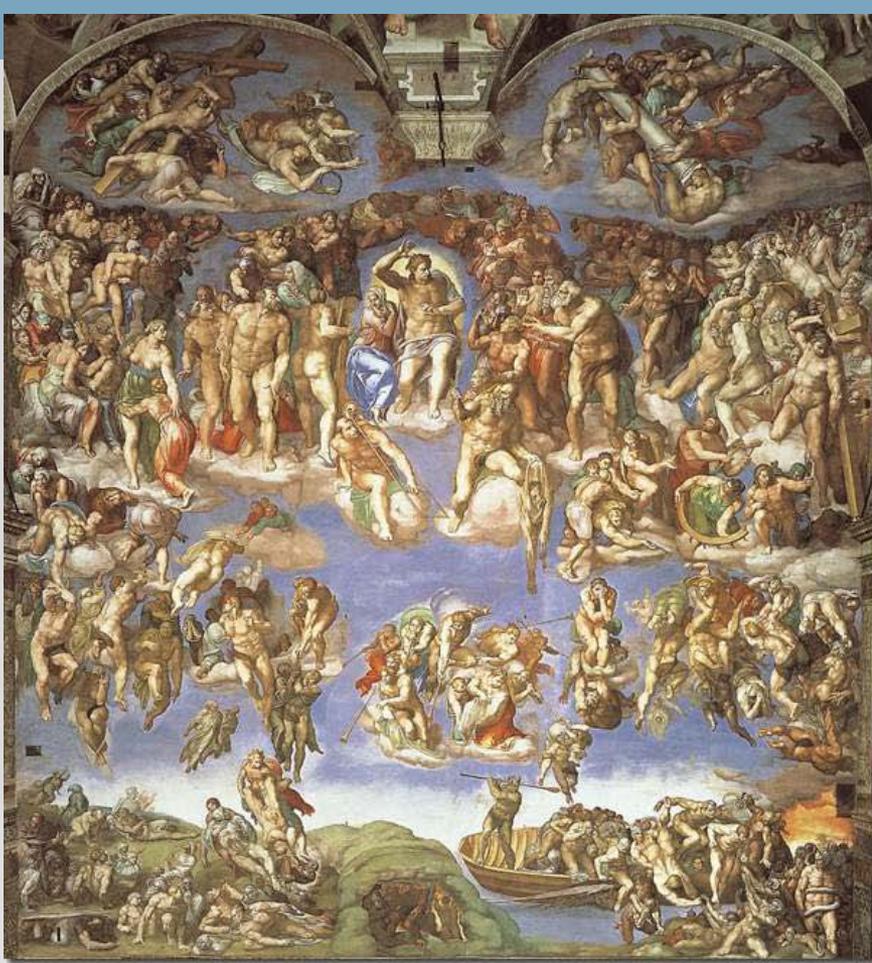


비잔틴시대의 주화(미카엘 4세, AD 1034-41)  
전면에 왼손으로 복음서를 안고, 오른손으로 강복하시는 예수님을 새겼고,  
좌측에 예수(IC)를, 우측에 그리스도(XC)를 새겼으며,  
뒷면에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IC XC NIKA)**라고 새겼다.

# 15-16세기 문예부흥시대의 예술가들은 왜 최후심판을 작품화했을까요?



최후의 심판(Stefan Lochner, c. 1435,  
Wallraf-Richartz Museum, Cologne 콜른, 독일)  
독자의 좌측은 구원 받은 성도들이 천사들의 안내를 받으며 천성으로 들어  
가는 모습이고, 독자의 우측은 저주 받은 자들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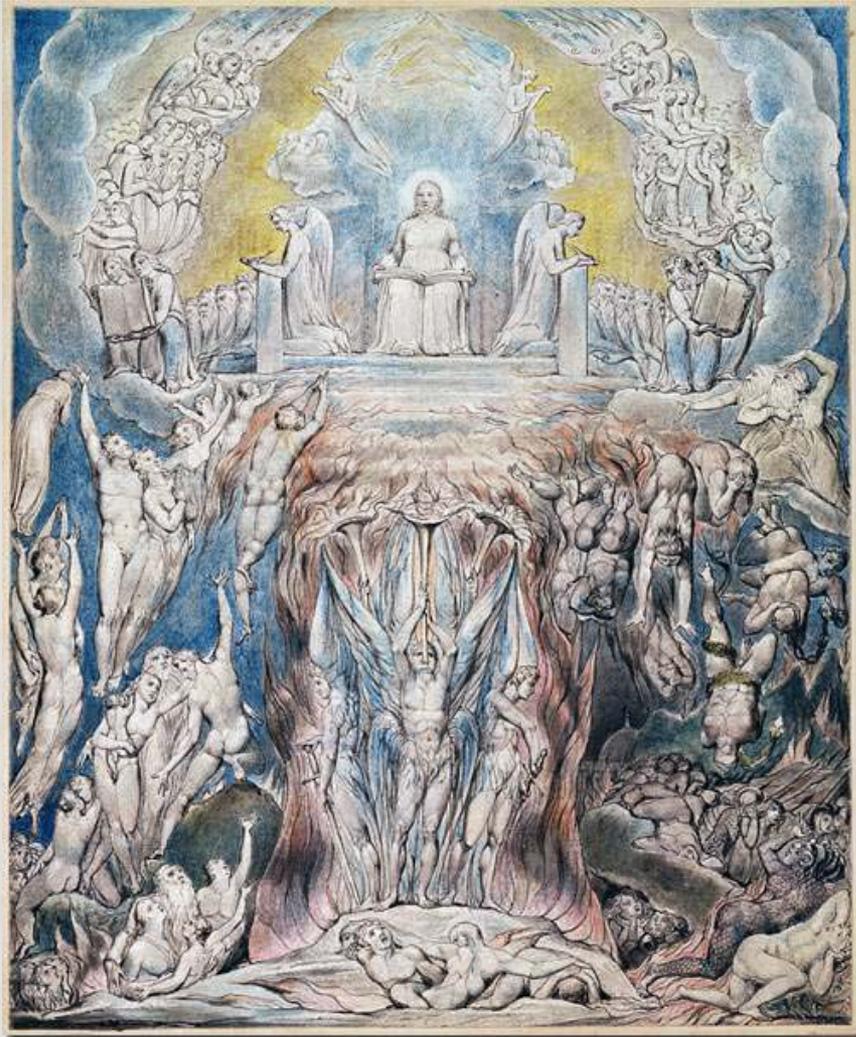


시스티나 성당(Sistine chapel)의 제단 벽에 그려진 프레스코 벽화. 미켈란젤로(Michelangelo Buonarroti, 1475-1564)가 1536년에 그리기 시작하여 1541년에 완성한 '최후의 심판'이란 제목의 작품이다. \*이 그림의 절반을 차지하는 상층부의 그리스도를 좌우에서 옹위한 인물들은 사도와 순교자들과 성도들이다. 하층부는 죽음의 세계(음부)로서 그리스도의 우측(독자의 좌측)은 성도들이 천사들의 나팔소리를 듣고 부활하는 모습이고, 그 위 중간층은 부활한 성도들이 천사들에게 이끌려 천국으로 옮겨지는 모습이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좌측(독자의 우측) 하층부는 지옥의 모습으로서 벙사공 카론이 혼령들을 실어다가 지옥의 수문장 미노스와 마귀들에게 보내는 모습이고, 그 위 중간층은 천사들의 나팔소리에 이마에 땀이 난 저승사자들이 지옥으로 보내야 할 사람들을 붙잡아 끌러내리는 모습이다.



INDE VENTVRVS EST IVDICARE VIVOS ET MORTVOS.  
M. de Vos inuent. Adriaen. Collaert sculp. et exc.

아드리엔 콜레르트(Adriaen collaert, c. 1560-1618)의 '최후의 심판' 판화. 콜레르트는 플랑드르(Flanders)의 디자이너 겸 판화조각사였다.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과 동일한 3층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좌우에 옹위한 인물들은 사도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하층부는 죽음의 세계(음부)로서 그리스도의 우측(독자의 좌측)은 성도들이 천사들의 나팔소리를 듣고 부활하여 천사들에게 이끌려 천국으로 옮겨지는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좌측(독자의 우측)은 저승사자들에게 붙잡혀 지옥 불에 던져지는 모습이다. 하단 난외에 "그분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INDE VENTVRVS EST IVDICARE VIVOS ET MORTVOS)는 사도신경의 한 소절이 적혀있다.



부  
활  
천  
국

부  
활  
지  
옥

백보좌 심판(William Blake, 1808)  
 로버트 블레이크의 시 '무덤' (The Grave)에 삽입된 삽화로써  
 독자의 좌측은 구원 받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부활하여 천성으로  
 올라가는 모습이고, 독자의 우측은 저주 받은 자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습이다.



최후의 심판(Viktor Mikhaylovich Vasnetsov, 1904, 러시아)  
독자좌측은 구원 받은 성도들이 천사들의 나팔소리에 무덤에서 부활하여 천성에 오르는 모습이고, 독자우측은 저주 받은 자들이 불못에 떨어지는 모습이다.

# 17세기 예술가들은 왜 헤라클레스를 작품화했을까요?

타고난 운명, 불굴의 인내와 믿음, 불사의 황금사과,  
최후 승리, 신의 보상과 위로(월계관과 보좌), 영원한 안식...



헤라의 '진노의 자식'이었던 헤라클레스가 자신에게 운명처럼 부과된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 곧 인생의 가시밭 길을 영웅적으로 마친 후 신들이 머무는 대전에 올라 헤라로부터 월계관을 받아쓰는 모습. (Martin Desjardins, 1671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헤라가 오른손에 월계관을, 왼손에 지구본 위에 세운 여신 승리를 붙잡고 있고, 헤라클레스가 오른손에 헤라의 라수원인 헤스페리데스의 동산에서 괴물 라돈(뱀)을 무찌르고 정취한 불멸을 주는 황금 사과를 쥐고 있고(Atlas설과 비교), 왼손에 올리브 몽둥이를 쥐고 있으며, 죽은 라돈이 바닥에, 네메아의 사자 가죽이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모든 수고를 끝낸 헤라클레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는 그림 (Sebastiano Conca, 1680-1764, 이탈리아인 화가)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뵈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236장)”  
“죽음의 고난 받으신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히 2:9-10).”  
\*그림에서 헤라클레스가 머리에 쓴 네메아의 사자 가죽, 오른손으로 누르고 있는 크레타의 향소, 다리 주변에 그려진 케리네이아의 암사슴, 헤스페리데스의 사과, 에리만토스의 멧돼지, 머리가 세 개인 하데스의 수문장 케르베로스는 헤라클레스에게 운명적으로 부과됐던 고난들을 묘사한 것이다.

# 17세기 예술가들은 왜 미카엘 대천사를 작품화했을까요?



사탄을 짓밟는 미카엘 대천사(1630, Guido Reni,  
Santa Maria della concezione, 로마의 해골성당)



사탄을 짓밟는 미카엘 대천사  
(1663, Luca Giordano, 베를린국립미술관)

# 17세기 예술가들은 왜 미카엘 대천사를 작품화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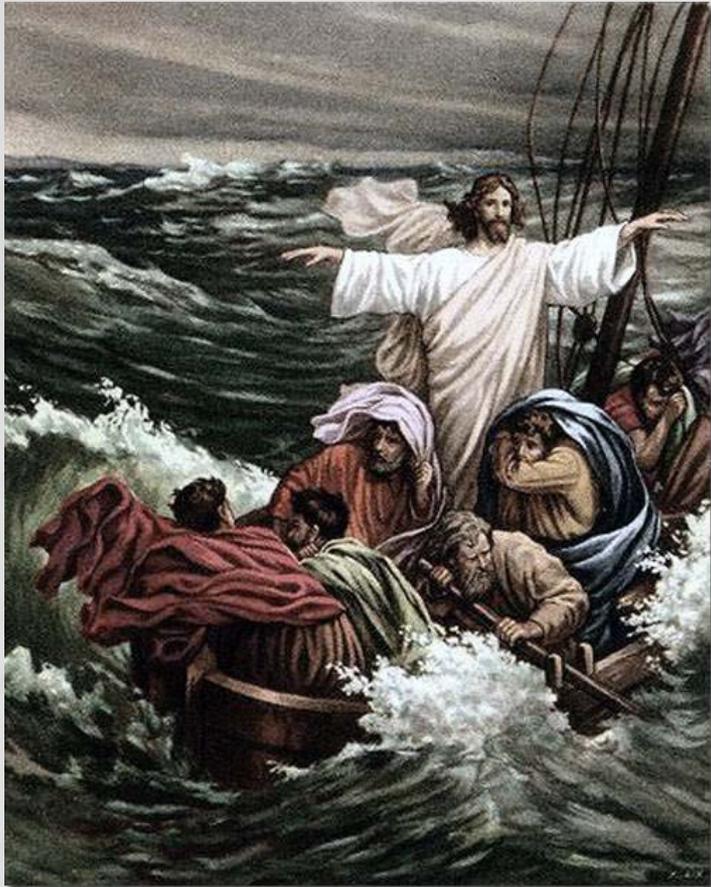


반역한 천사들의 몰락 (1660-65, Luca Giordano,  
오스트리아 빈 미술사 박물관, The Kunsthistorisches  
Museum in Vienna, Austria)



미카엘 대천사의 동상 (독일 함부르크 성 미카엘 루터교회)

# 이 그림이 19-20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삶의 능력이 무엇이였을까요?



폭풍을 잔잔케 하실 그리스도  
1883년에 출판된 어린이 성경에 실린 삽화



폭풍을 잔잔케 하실 그리스도  
(William Brassey Hole, 1846-1917)

제1차 세계대전(1914-18년), 스페인독감(1918-20), 경제대공황  
(1929-39)의 풍랑. 성도님이 직면한 거친 풍랑은 무엇입니까?



용(사탄)을 짓밟는 미카엘 대천사(2007, 독일 본대학교) 방판에 라틴어로 "Quis ut Deus"(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미카엘'의 문자적 의미)라고 새겼다(계시록 13: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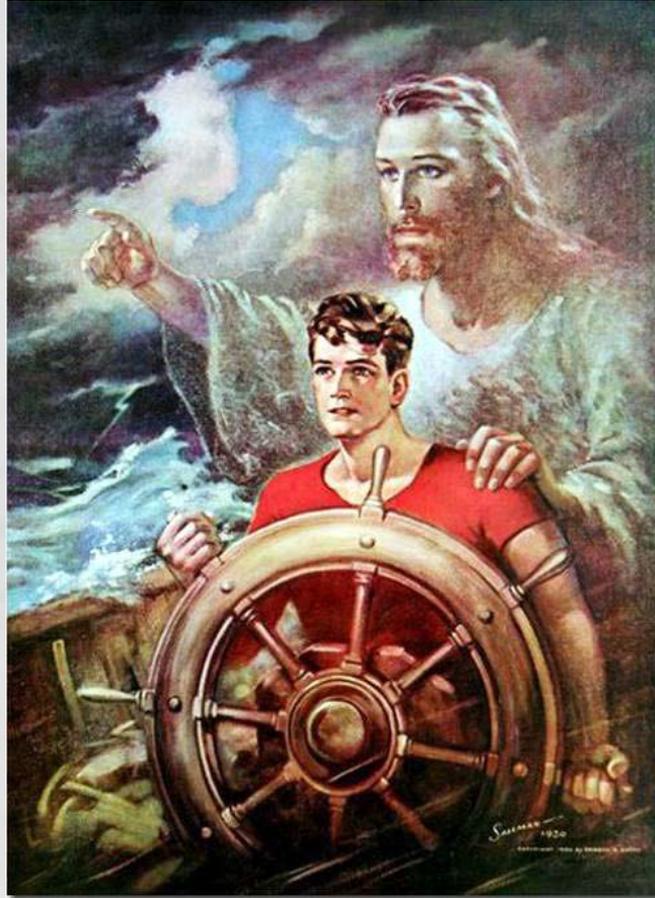
지성의 전당인 본  
(Bonn) 대학교에  
왜 이런 동상을  
세웠을까요?

성도님에게 용(사탄)  
은 무엇입니까?

성도님은 무슨 힘으  
로 괴물(혹은 거친  
파도)을 굴복시키려  
합니까?

# 삶의 에너지가 되는 그림

누굴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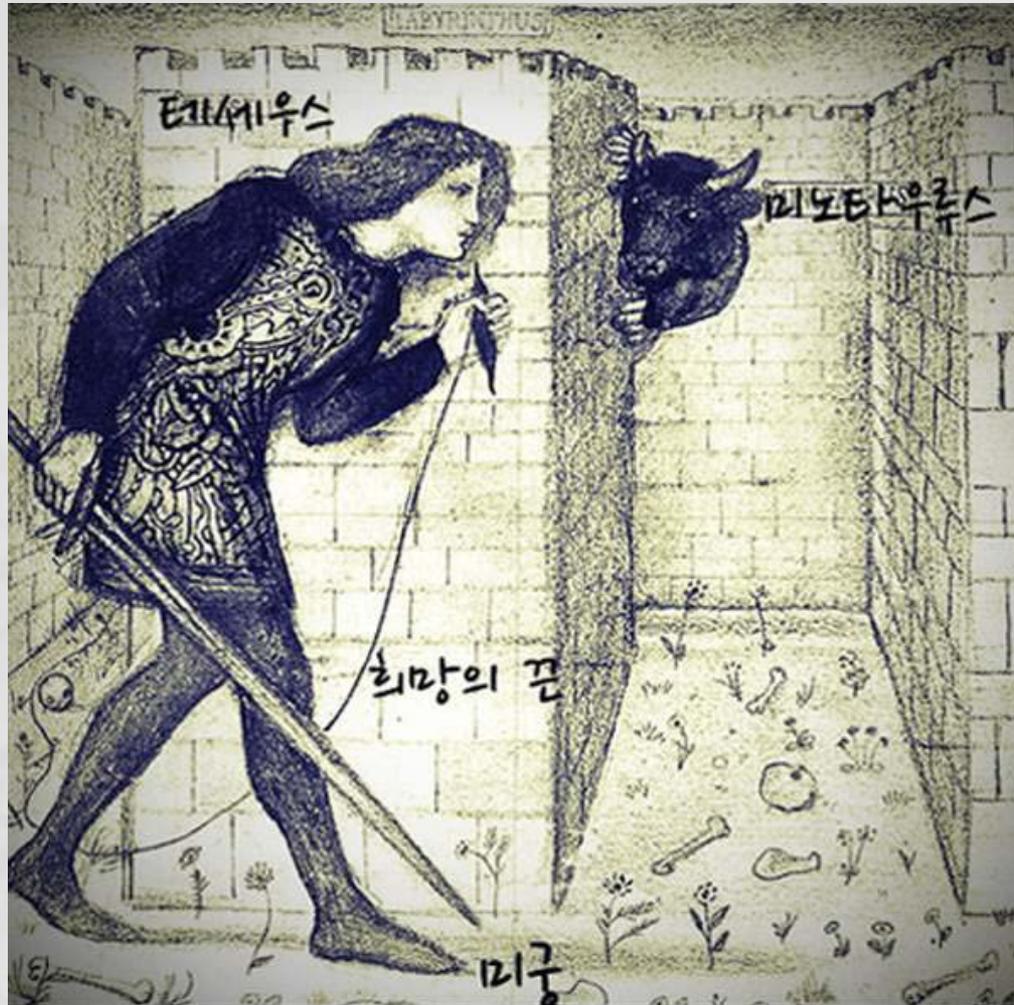


그리스도 우리의 키잡이(christ our Pilot, warner Sallman, 1950). 워너 설만이 1950년에 그린 작품으로서 크리벨과 베이츠(Kriebel & Bates)가 저작권을 갖고 보급하고 있는 성화이다. 필자는 1960년대 초중고 시절에 이 성화를 보며 자랐고, 예수님이 내 삶의 키잡이이심을 믿었다.

제2차  
세계대전  
(1939-45),  
한국전쟁  
(1950-53)  
의 풍랑.

성도님은  
무엇으로  
이 거친  
바다를  
항해하려  
합니까?

# 삶의 에너지가 되는 그림



살리는(gives life) 일을 하는 영웅은 희망(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자이다.

# 승리자 그리스도 = 승리자 그리스도인

## IS XS NIKA=Christians the Conquerors

불굴의 인내와 믿음으로 싸운 인생 전쟁의 결과

- J장군 그리스도께서 적장과 적군을 모두 무너뜨리시고 개선장군이 되시다.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월계관을 받아 쓰시고 우편보좌에 앉으시다.
- 그리스도의 용사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다.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월계관을 받아 쓰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다.
- 이것이 부활절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의미이다.